

칠레의 화이트 와인… 몬테스 주니어의 엿지



안 상 미 기자의

Why, wine 339

따라서 읽다보면 고개를 갸웃거리는 각도가 점점 더 커지게 된다. 칠레라면 아무래도 레드 와인이 더 친숙한데, 칠레 스파클링 와인은 마셔본 적이 있었나속으로 반문하다가, 칠레 알바리노 와인에서는 웬만한 와인애호가라도 손을 들게 된다.

칠레 와인너리 몬테스의 수석 와인메이커인 아우렐리오 몬테스 주니어(Aurelio Montes Jr.)는 최근 한국을 방문해 “전 세계적으로 좀 더 가볍고 편하게 마시기 좋은 화이트 와인의 열풍이 풀고 있지만 칠레는 이전부터도 서늘한 기후의 산지에서 이런 와인들을 만들어오고 있었다”며 “샤도네아나 소비뇽 블랑 뿐만 아니라 다양한 품종의 화이트 와인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름에 다 나왔지만 그는 몬테스의 설립자인 아우렐리오 몬테스의 아들이다. 현재 몬테스 양조팀 전체를 총괄하고 있다.

어쩌다보니 와인너리를 맡게된 2세대라고 보면 오산이다. 농업과 와인 양조를 전공한 것을 비롯해 전세계 주요 와인 산



칠레 와인너리 몬테스의 수석 와인메이커인 아우렐리오 몬테스 주니어(Aurelio Montes Jr.)가 몬테스 화이트 와인 산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안상미 기자

지를 둘러보며 경험을 쌓았고, 칠레 테루아를 연구하는 프로젝트에도 참여했다. 몬테스가 칠레 프리미엄 와인의 출발점이 된 것처럼 그가 이끈 와인너리 카이켄이 아르헨티나 프리미엄 와인의 상징이 되면서 간간히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아르헨티나에서 칠레로 돌아온 것은 지난 2016년이다.

그가 생각할 때 와인 양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특별한 기술이나 경험 이 아니라 포도다. 그래서 훌륭한 와인메이커라면 제대로된 포도밭을 찾을 줄 알아야 하고, 테루아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먼저 칠레 지도를 떠올려보자. 남북으로 길게 뻗어있고, 폭은 좁다. 북쪽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건조하다는 아타카마 사막이, 남쪽으로는 빙하가 떠다니는 파타고니아가 있다.

그는 “칠레는 화이트 품종은 남부로, 레드 와인은 북부로 가야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지만 와인 양조에 있어 진정한 쿨 클라이밋 지역은 남북이 아니라 차가운 해류가 지나는 해안과 얼마나 가까운지를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주니어가 프리미엄 화이트 와인의 산지

로 낙점한 곳 중 하나가 자파야 빈야드다. 산티아고에서 오히려 북쪽으로 150km 떨어진 곳이라 사막이 시작되는 구간이다. 덥지 않을까 싶지만 해안과의 거리가 단 11km로 가깝다 보니 오히려 포도가 완숙될 수 있을까 싶은 냉장고 같은 환경이다. 알바리노는 스페인의 화이트 품종이다. 화이트 와인의 산지로서 칠레의 다양성과 잠재력을 입증하기 위해 알바리노 재배에 도전했지만 어려움을 겪다가 성공한 곳이 바로 자파야 빈야드다.

‘몬테스 아우터 리미트 알바리노’는 처음 향에서는 살구같은 핵과류가 소극적으로 느껴지지만 입안에서는 과실미가 팡팡 터진다. 다른 화이트 품종보다 한 달 이상 늦게 수확할 만큼 천천히 완숙되어 과실은 신선하고, 산도는 생동감이 있다. 해안가다운 짙은 미네랄로 익힌 해산물이나 조개구이와 잘 어울릴 와인이다.

‘몬테스 스파클링 엔젤 브뤼’는 2차 발효를 병 속에서 진행하는 전통적인 샴페인 양조 방식으로 만들었고, 숙성 기간도 빈티지 샴페인 수준과 같은 36개월이다. 포도품종은 피노누아와 샤르도네를 반반씩 섞었다. 초기에는 피노누아의 비중이 더 높았지만 자파야 샤르도네의 청량감을 더하기 위해 변화를 주었고, 샤르도네의 비중을 점차 더 늘려갈 예정이다. 기포는

촉촉하면서 힘이 있고, 입 안에서는 자파야 샤르도네의 바삭한 산도가 인상적이다. 장어 같은 기름기 있는 생선과 같이 페어링해도 좋을 스파클링이다.

몬테스 스파클링 엔젤 브뤼가 진지함이 라면 ‘몬테스 루미스’는 경쾌함이다. 언제 어디서든 마시기 편한 스파클링 와인을 만들고자 했다. 파인애플 같은 열대과실에 산도도 탄산도 과하지 않아 그야말로 술술 넘어가는 스파클링 와인이다. 스테인리스 탱크에서 2차 발효를 진행하는 샤르마 방식으로 만들었지만 효모 양급과 10개월간 접촉해 질감과 여운이 잘 살아 있다. 2년 전에 새로 내렸는데 칠레 내수 시장에서 반응이 좋다. 아직 국내에서는 만나볼 수 없다.

사실 알려지지 않았을 뿐 몬테스는 화이트 와인에서도 이미 인정을 받았다. 몬테스 소비뇽 블랑은 1990년 세계 와인 박람회인 비넥스포에서 금메달을 받았고, 첫 스파클링 와인인 ‘스파클링 엔젤’이 선을 보인지도 이미 10년이 넘었다.

현재 몬테스의 전체 포도밭 가운데 화이트 품종의 비중은 30%지만 점점 늘고 있는 추세다. 알바리노 뿐만 아니라 리슬링과 세미용, 마르산느까지 몬테스의 도전은 언제나 현재진행형이다.

/smahn1@metroseoul.co.kr



metro

문화 단신



SLI이 캐나다를 거점으로 영어권 콘텐츠 공동개발을 본격 확대한다. /SLI

SLI, 캐나다 거점 ‘글로벌 IP 공동개발’

CAPCA서 영어권 4개 프로젝트 개발한·캐나다 협정 타고 공동제작 확대

SLI이 캐나다를 거점으로 영어권 콘텐츠 공동개발과 글로벌 공동제작을 본격화한다. 완성된 K-콘텐츠를 해외에 판매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현지 제작사·크리에이터와 기획 단계부터 협업하며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IP 확보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SLI은 2024년부터 캐나다를 북미 시장 진출의 거점으로 삼고 현지 제작사와 크리에이터, 콘텐츠 관련 기관과 협력하며 공동개발 기반을 구축해왔다. 캐나다 비영리단체 RESO(Racial Equity Screen Office)와는 한국과 캐나다 크리에이터를 연결하는 CAPCA(Canada-Asia Co-Production Accelerator)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CAPCA를 통해 한국 드라마 IP를 기반으로 한 영어 리메이크 프로젝트 2편과 영어 오리지널 프로젝트 2편 등 총

4개 프로젝트를 개발 중이다. SLI은 캐나다의 제작 인프라와 북미 시장 접근성, 정부의 공동제작 지원 제도에 한국의 IP 기획력과 스토리텔링 역량을 결합해 글로벌 콘텐츠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난 4월 한-캐나다 간 시청각 공동제작 협력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면서 양국 간 공동제작 확대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SLI은 캐나다를 시작으로 글로벌 공동창작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영어권 콘텐츠 개발 및 공동제작을 통해 글로벌 IP 사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준서 SLI 대표는 “K-콘텐츠는 완성된 작품을 해외에 판매하는 단계를 넘어 글로벌 파트너와 기획 단계부터 세계 시장을 겨냥한 IP를 공동 개발하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며 “캐나다가 시작으로 글로벌 공동창작 네트워크를 지속 확대해 새로운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롯데시네마 “썸드라마·음악다큐도 극장에서”

이준익 첫 썸드라마 내달 9일 공개
오아시스 공연 다큐도 단독 상영

롯데시네마가 9월 단독 개봉 콘텐츠인 ‘뽕시픽’ 라인업을 공개했다. 썸드라마부터 음악 다큐멘터리, 재개봉작, 애니메이션까지 장르를 확대했다.

오는 9월 9일에는 썸드라마 ‘아버지의 집밥’과 다큐멘터리 ‘오아시스: 돈 룩 백 인 앵거’를 선보인다.

아버지의 집밥은 이준익 감독의 첫 썸드라마 연출작이다. 세로형 프레임에 그대로 대형 스크린에 상영한다.

정진영, 이정은, 변요한 등이 출연해

가족 이야기를 다룬다. 모바일 중심의 썸폼 콘텐츠를 극장에서 선보이는 방식이다.

오아시스: 돈 룩 백 인 앵거는 영국 밴드 오아시스의 재결합 공연을 담은 다큐멘터리다.

9월 16일에는 영화 ‘코다’를 개봉 5주년 기념으로 단독 재개봉한다. 9월 23일에는 어린이 관객을 대상으로 ‘바다 탐험대 옥토퍼 어보브 앤 비온드: 두근두근 대자연 어드벤처’를 선보인다.

롯데시네마 관계자는 “롯데시네마에서만 만날 수 있는 콘텐츠를 통해 차별화된 영화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부산국제영화제

‘액터스 하우스’ 6인 공개

김고은·류승룡·신민아 등 총출동

부산국제영화제의 대표 프로그램 ‘액터스 하우스’가 올해 더욱 풍성한 배우 라인업으로 관객을 만난다. 2021년 신설된 액터스 하우스는 동시대 대표 배우들이 자신의 필모그래피를 돌아보며 연기 철학과 작품 비하인드, 배우로서의 고민을 관객과 직접 나누는 토크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김고은, 김민하, 류승룡, 신민아, 이민호, 주지훈 등 6명이 참여한다. 김고은은 ‘은교’를 시작으로 ‘차이나타운’, ‘도깨비’, ‘대도시의 사랑법’, ‘파묘’ 등 장르와 캐릭터를 넘나들며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보여왔다. 이번 행사에서는 그동안의 연기 인생과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김민하는 ‘파친코’를 통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사회자이자 개막작 ‘낮과 밤은 서로에게’의 주연으로도 관객과 만난다. 류승룡은 ‘7번방의 선물’, ‘극한직업’, ‘인생은 아름다워’ 등 대표작을 통해 쌓아온 연기 철학을 공유한다. 신민아는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 ‘갯마을 차차차’부터 ‘디바’, ‘악연’ 등 다양한 장르에서 보여준 연기 변신을 이야기한다. 2026 액터스 하우스는 예매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일정과 예매 방법은 부산국제영화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원선 기자

독일 맥주축제 ‘옥토버페스트’ 서울 상륙

내달 12~21일 문화비축기지 개최

독일 뮌헨의 맥주 축제 ‘옥토버페스트’를 서울에서 즐길 수 있는 ‘옥토버페스트 서울 2026’이 다음 달 열린다.

도이치옥토버페스트코리아는 9월 12일부터 21일까지 서울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 행사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행사에는 파울러너, 크롬바커, 슈나이더, 벨텐부르거 등 독일 맥주 10종과 국내 수제맥주 브랜드 OBC가 참여한다. 독일

현지 축제 전용 맥주잔도 할레бран트 고리와 DHL 서플라이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국내로 들어온다.

먹거리로는 글로벌 케이터링 기업 아라마크가 슈바이안학센, 독일식 소시지, 비프슈니첼, 프레첼 등 독일 요리를 선보인다. K-치킨도 함께 마련해 독일 맥주와의 조합을 선보인다.

독일 축구 명문 구단 FC 바이에른 뮌헨은 공식 파트너로 참여해 전용 부스를 운영하고 협업 굿즈를 선보인다. /신원선 기자

메트로 한줄뉴스



▲일본은행 부총재 “정책금리 계속 인상, 금융안정 정도 조정”

▲빌 게이츠 “AI 피해 대비 위해 규제와 국제적 협력 필요” /사진 뉴시스

▲중티베트 산사태 실종자 558명으로 늘어… 외국인 260명 포함

▲트럼프, 사우디 핵협정 의회 제출… ‘이스라엘 수교’ 관철방안은 불분명

▲日 도야마·이시카와 기록적 폭우… 18만명에 긴급 안전 확보

▲“헤그세스, ‘갈등 속 사임설’ 육군장관 후임에 본인 대변인 검토”